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발효

- 적용대상 기업, 적용시점 등 유의할 필요 -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이 2024. 7. 25. 발효되었습니다. 이는 2022. 2. 23.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지 2년이 훌쩍 넘어 이루어진 것입니다. CSDDD는 기업의 공급망 내 인권과 환경 부문의 여러 요소를 실사 항목으로 삼고 있으며, EU 역내·역외 기업들의 규모에 따라 적용 여부와 그 시점을 각기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EU 회원국인 프랑스·독일 등에서는 개별적인 공급망 실사 규제가 제정되어 있어 기업들이 어느정도 준비를 해온 상태이나, CSDDD의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기업들은 아직 준비가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CSDDD 미준수 기업에게는 전 세계 매출액 최대 5%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는 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1. 배경
2. 주요 내용
3. 시사점

1. 배경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이 2024. 7. 25. 발효되었습니다. CSDDD에 대해서는 [2022. 2. 23.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하였고, 여러 과정을 거쳐 [2023. 12. 14. EU 이사회와 의회를 통한 3자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 [2024. 3. 15. 상주대표회의 27개국 내 내용 수정을 거쳐 합의](#)를 이뤘으며, [2024. 4. 24. EU 의회 본회의의 최종표결을 거쳐 통과](#)되었고, 2024. 7. 25. 발효된 것입니다.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 정책의 일환으로 준비된 CSDDD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EU 역내·역외 기업들에게 공급망 속의 자사와 자회사, 공급사, 협력사 등의 활동을 실사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급망은 생산·유통의 전체 과정 속 일반 소비자가 제품을 이용하게 되는 마지막 절차까지의 일련의 활동으로 나타나는 사업 관계를 의미합니다. 특히, 업스트림 공급망과 다운스트림 공급망으로 나뉘는데, 전자는 원자재 수출·소싱, 부품 또는 제품의 제조·공급, 제품의 디자인·설계 서비스 개발 등 영역을 말하며, 후자는 제품의 유통·운송·보관을 뜻합니다. 공급망 중 제품의 폐기 및 소비자 이용 단계는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EU 역내 기업이 아니더라도 특정 기준 충족 시 CSDDD에 따른 실사대상이 되기에 EU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제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미 다수의 국내 대기업에게 적용될 것이 예상됩니다.

※ 참고 - 관련 화우 뉴스레터

- [공급망 실사 관련 주요 규제 동향](#) (24. 4.)
-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임시 합의 도달](#) (23. 12.)

2. 주요 내용

CSDDD의 실사 항목은 인권과 환경 분야이며, 기업의 매출액 · 직원 수 등에 따라 그 적용대상 여부와 적용 시점 등이 달라집니다.

1) 적용대상 기업

역내 (전년도 회계연도 기준)		역외 (전전년도 회계연도 기준)	
전세계 순 매출액 4.5억 유로 초과 & 직원 수 1천 명 초과 OR 최종 모기업	역내 프랜차이즈·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로열티 수익 2,250만 유로 & 전 세계 순 매출액 8천만 유로 초과 OR 최종 모기업	EU 역내 순 매출액 4.5억 유로 초과 OR 최종 모기업	프랜차이즈·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로열티 수익 2,250만 유로 초과 & EU 역내 순 매출액 8천만 유로 초과 OR 최종 모기업

*한화로 4.5억 유로는 약 6,700억 원 / 2,250만 유로는 약 330억 원 / 8천만 유로는 약 1,200억 원

2) 적용시점

구분		2027년부터	2028년부터	2029년부터
역내	직원 수	5천명 초과	3천명 초과	1천명 초과
	순 매출액 (전세계)	15억 유로 초과	9억 유로 초과	4.5억 유로 초과
역외	순 매출액 (EU역내)	15억 유로 초과	9억 유로 초과	4.5억 유로 초과

*한화로 15억 유로는 약 2조 2,400억 원 / 9억 유로는 약 1조 3,400억 원 / 4.5억 유로는 약 6,700억 원

3) 실사 항목

CSDDD의 실사 항목은 인권과 환경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인권 부문에는 아동권리협약과 시민적 ·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에 근거한 생명권, 자유권, 노동권, 아동노동 금지 등 항목이 있습니다. 환경적 권리에 대한 실사 또한 인권 부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경 부문에는 생물다양성, 폐기물, 오염물질,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해양, 습지 등이 그 실사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4) 실사이행 절차



출처: KOTRA EU 공급망 실사지침 Q&A

5) 기후전환계획

CSDDD의 적용 대상이 되는 기업들은 기후전환계획(Transition plan for climate change mitigation) 대상에도 해당합니다. 해당 계획은 ① 지속 가능한 경제전환, ② 기온상승 정도를 섭씨 1.5도로 제한하는 파리협정, ③ 2050년까지 기후 중립 목표 달성 등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한 투자계획, 탈탄소화 조치 등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3. 시사점

2022년 2월에 논의되기 시작하여 2년이 넘는 기간을 거쳐 발효된 CSDDD는 EU의 통일된 공급망 실사 규제의 신호탄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프랑스, 독일 및 네덜란드 등 EU 회원국들이 각자 입법을 통해 관련 규제를 실시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기업실사법(La loi relative au devoir de vigilance des sociétés mères et des entreprises)을, 독일은 공급망실사법(Lieferkettensorgfaltspflichtengesetz)을 적용하여 왔습니다.

각 회원국 내의 기업들은 이미 이에 대응하여 공급망 내 인권문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고 고충처리절차를 고도화하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CSDDD적용 대상에 속하거나 간접적으로 준수 요구를 받는 기업은 실사 이행 요소에 따라 Due Diligence 체계를 구축한 뒤 인권, 환경 위험 식별과 모니터링을 위해 상시적 고충 접수 채널의 운영을 강화, ESG리스크 진단과 검증을 전략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급망 실사법은 기업 경영 활동과 연관되는 넓은 범위에 관리를 요하는 규제이므로 관리의 유효성 향상을 위해서는 계약적 수단 뿐 아니라 교육 등을 통해 인식을 높이고 기업의 경영 현황에 적합한 리스크 식별 및 관리 방안을 고도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기업들이 CSDDD를 미준수 할 경우 민사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이고, 전 세계 순 매출액의 최대 5%까지의 벌금을 부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 조달 사업 등에서 배제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보다 더 상세하고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화우 ESG센터는 정확하고 효과적인 ESG Total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ESG 고도화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갈수록 강화되고 복잡해지는 ESG 정책 및 규제환경에서 화우ESG센터는 고객의 신뢰있는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s

신승국 T. (+82) 2 6182 8502
 센터장/미국변호사 E. synn@yoonya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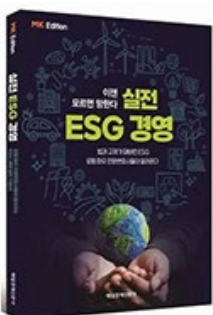
이근우 T. (+82) 2 6003 7558
 파트너변호사 E. klee@yoonyang.com

김정남 T. (+82) 2 6003 8559
 ESG전략 그룹장 E. in kim@yoonyang.com

강석준 T. (+82) 2 6182 8505
 변호사 E. kangsj@yoonyang.com

양희 T. (+82) 2 6003 7674
 시니어매니저 E. hyang@yoonyang.com

김현지 T. (+82) 2 6003 7470
 시니어컨설턴트 E. khji@yoonyang.com



화우 ESG센터는 기업이 ESG 규범화 이슈를 대응함에 있어 도움을 드리고자 '실전ESG경영'을 출간하였습니다.

주요 ESG 영역별 규범화 동향, 공급망 실사 규제 지침에 대한 상세한 소개와 산업별 주요 ESG 이슈 등을 담고 있어 기업의 실질적인 안내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도서 정보 바로가기](#)